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h2 style="text-align: center;">서울동부지방검찰청</h2>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공보관 이만흠 전화 02-2204-4201</p>	<h2 style="text-align: center;">보 도 자 료</h2> <p style="text-align: center;">2024. 3. 26.(화)</p>
<h3 style="text-align: center;">제 목</h3>	<h2 style="text-align: center;">불법 선물 거래 프로그램 이용, 90억 원 상당을 벌어들인 조직 적발, 엄단</h2> <p style="text-align: center;">- 총책 등 조직원 32명 입건, 30명 기소(10명 구속), 2명 추적 중 -</p>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제10조 제1항 제3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및 수사의 의의 등(제10조 제2항)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영미)는 실존하는 홈트레이딩 시스템(HTS*)과 같은 화면으로 사이버상에서 투자자들을 유인, 사행성을 조장하여 90억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불법 선물 거래 조직을 집중 수사하여,
 - * 투자자가 객장에 나가지 않고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선물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① 방대한 디지털 증거물(조직원들 사용 PC 화면 캡처 파일, 휴대폰·PC·클라우드·이메일 자료 등) 분석을 통해, 필리핀에서 활동하던 프로그램 개발자를 특정·구속하고,
 - ② 국내에서 '○○에셋'이라는 사설 선물 HTS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거액의 증거금이나 교육 참여 없이 쉽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인, 169명으로부터 합계 약 90억 원의 투자금을 송금받은 운영자·조직원 9명을 구속하고,
 - ③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하고, 합계 약 33억 원의 수익금을 세탁해준 대포통장 공급업자 등 총 32명을 자본시장법위반죄 등으로 입건하고, 10명을 구속기소(3명은 1심 실형 선고받고 항소심 중), 20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나머지 공범 2명은 계속 추적 중).
-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은 회원들에게 매매타이밍을 알려주는 단체대화방(일명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조직원들이 회원인 것처럼 리딩방에 참여하여 허위 수익을 인증하는 등 회원들의 투자를 유인하고, 회원들의 손실금액을 자신들의 수익으로 나눠 가졌습니다.

- 이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스크린샷)하여 공급조직의 서버로 전송함으로써 가입희망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리딩방에서는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등 전문적으로 회원을 관리하였습니다.
- 압수물·계좌 분석 등을 통해 주요 조직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약 20억 원을 특정, 이 중 수익 12억 원에 대하여 이들 소유의 부동산 등 재산을 추징** 보전하였고 나머지 수익에 대하여도 추징보전 청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검찰은 앞으로도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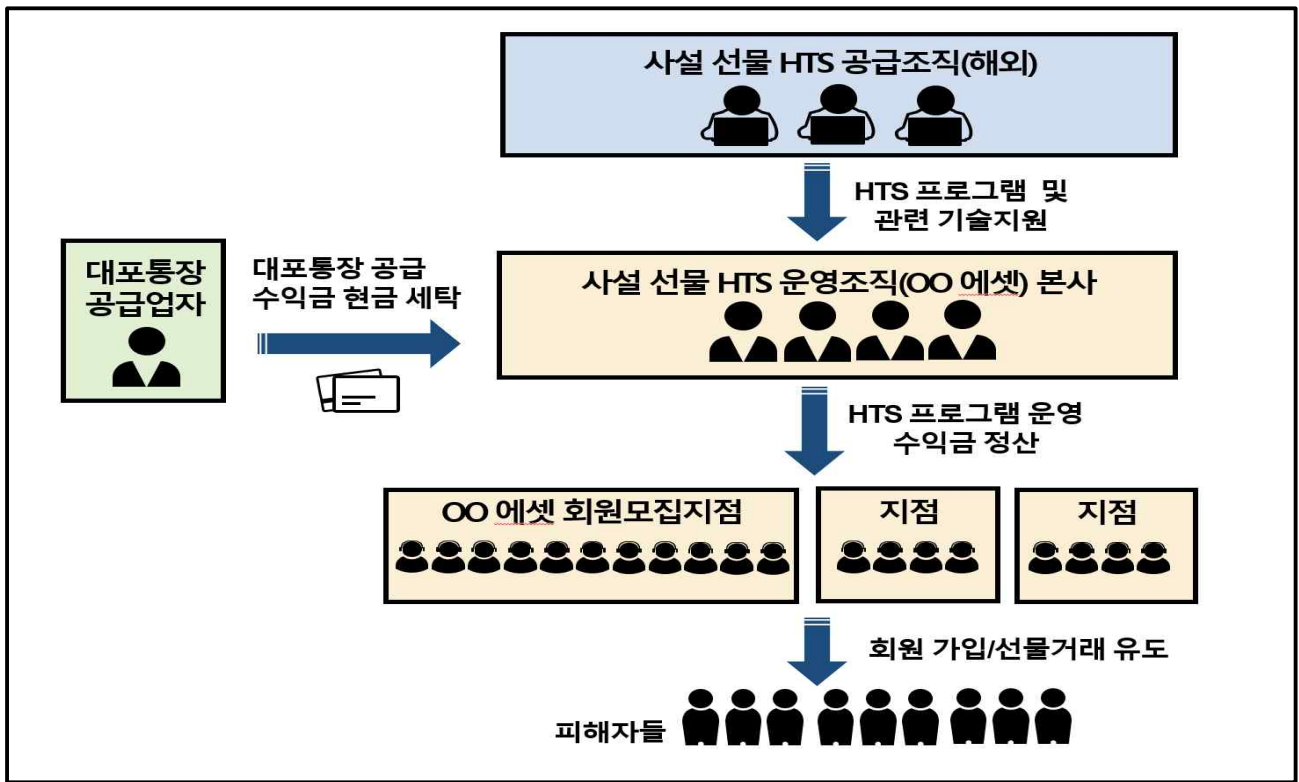
1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① **피고인 (총 30명)** ※ 피의자 2명 해외 도피 중, 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

순번	피고인	역할	비고
1	A1(남, 39세)	사설 선물 HTS 공급조직 ※ 해외도피 조직원 2명(A2, A3) 추적 중	1명 구속 ※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중
2~5	B1(남, 31세) 등 4명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에셋) 본사	4명 구속
6~29	C1(남, 31세) 등 24명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에셋) 지점	5명 구속 ※ 2명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 중
30	D(남, 40세)	사설 선물 HTS 조직 범죄수익 세탁업자	별건 구속

②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별 공소사실 요지는 별첨1 참조

- ① 「사설 선물 HTS 공급조직」은 프로그램 내 가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선물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에 HTS 프로그램 및 관련 서버구축,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고,
- ②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은 '22. 3. ~ '23. 10.경 위 HTS 프로그램을 이용, '○○에셋'이라는 이름으로 90억 원 상당의 불법 선물 HTS를 운영하면서, 「사설 선물 HTS 조직 범죄수익 세탁업자」를 통해 수익금을 현금으로 세탁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범행 구조]

2 주요 수사 경과

- '23. 4. 서울동부지검, 수사착수
- '23. 8. 30. HTS 공급조직 개발자 A1 구속 기소(필리핀에서 입국시 체포)
※ '24. 2. 15. 1심 선고(징역 2년, 추징금 1억 2,400만 원), 항소심 재판 중
- '23. 11. 27. ○○에셋 회원모집 지점장 C1, C2 구속 기소
※ '24. 1. 17. 1심 선고(징역 1년 및 1년6월, 추징금 각 1억 4,300만 원), 항소심 재판 중
- '23. 12. 15. 운영조직 본사 운영자 B1 구속 기소
- '24. 2. 5. 운영조직 본사 운영자 B2, B3 구속 기소
- '24. 3. 26. 회원모집 조직원, 대포통장업자 24명 기소(운영조직 본사 운영자 등 4명 구속 기소, 나머지 20명 불구속 기소)

3

수사 결과 및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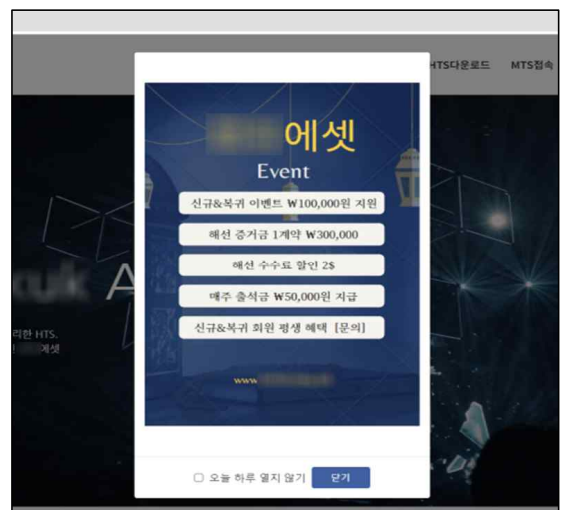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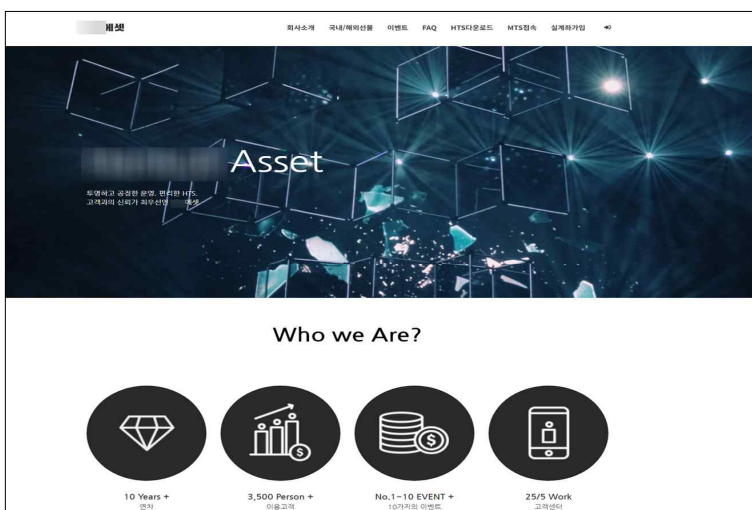
1 방대한 디지털 증거 분석과 사이버 추적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 공급조직 특정

- 「사설 선물 HTS 공급조직」은 코스피200, 금, 나스닥 등 실시간 지수에 따라 프로그램 내 가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선물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HTS 운영조직들에 제공함



[사설 HTS 프로그램 구동 화면]

- 「사설 선물 HTS 공급조직」은 정상 업체인 것처럼 보이는 홈페이지도 함께 구축하여 HTS 운영조직에 제공하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



[사설 선물 HTS 운영업체(OO에셋) 홈페이지 화면]

-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에는, 일정 시간마다 자동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PC의 화면을 캡처(스크린샷)하여 「사설 선물 HTS 공급조직」이 지정한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었음(가입희망자의 화면을 조직에서 확인, 화면상 다른 선물 프로그램을 병용하는 등 전문 투자자로 보이는 경우 회원가입 불승인을 하여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 배제에 활용)
- PC 캡처 화면들을 포함한 다량의 디지털 증거물 분석과 사이버 추적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설 선물 HTS 공급조직」의 개발자를 특정하고 입국시 체포하여 구속기소함

※ 해외 도피 중인 「사설 선물 HTS 공급조직」의 조직원들 계속 추적 중

② 인터넷 접속이력, 통화내역 분석, 현장 잠복 등 꾸준히 노력하여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 구성원 순차 검거

-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에셋’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선물 HTS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모집한 조직에 대해,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이들 조직의 범행 전모를 규명함
 - 휴대폰 발신기지국 추적, 조직원 클라우드 자료 추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반복 이전한 사무실을 계속 추적하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현장에 있던 조직원들 휴대폰 및 은닉한 업무용 휴대폰·USB메모리 등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여 지점 운영자들을 구속기소함
- ‘○○에셋’ 회원모집지점은 「사설 선물 HTS 공급조직」의 개발자가 검찰에 체포되자 사용하던 PC 등을 폐기하고 사무실을 반복 이전하는 등 수사에 대비함



[압수수색 당시 사무실 내 전자레인지에 숨겨놓은 휴대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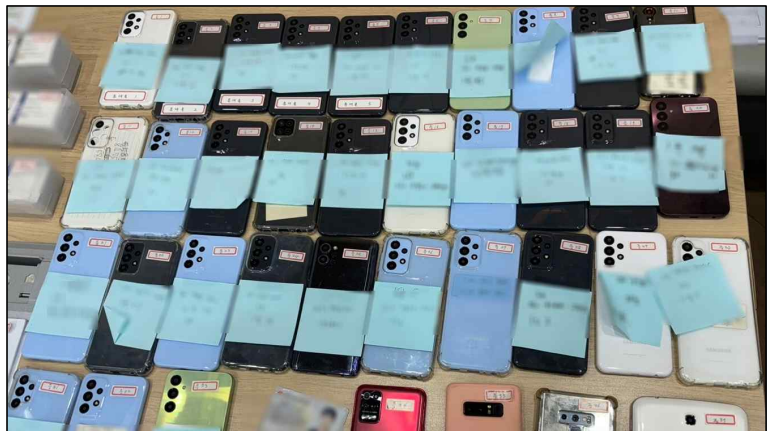
● 구속한 '○○에셋' 회원모집지점 운영자들에 대한 조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에셋' 본사 운영자 1명을 특정하여 체포·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나머지 본사 운영자·직원 3명까지 모두 특정하고 구속 기소함

- '○○에셋' 본사의 경우에도, 지점과는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고, IP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HTS 프로그램 공급조직'에서 제공한 서버에 원격 접속하여 입출금 인터넷 बैं킹을 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며 범행

※ 본사 운영자, 직원들은 처음에는 범행 부인하고 공범을 숨겼으나, 다량의 디지털 자료 분석을 통해 확인된 증거들을 제시하자 결국 범행 자백하고 공범에 대해서도 진술함

●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에셋' 본사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본사로부터 송금받은 수익금을 현금 세탁하여 준 대포통장 공급업자도 특정하여 함께 기소함(대포통장업자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 중)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사용한 서버, 노트북, 휴대폰 **합계 약 180대 (약 25TB 상당)**를 압수,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주요 증거들을 다수 확보함



[압수한 노트북, 서버, 휴대폰]

3 구체적 범행수법 확인 및 범진수의 환수

- ‘○○에셋’ 본사는 회원모집지점에서 가입을 유도한 회원들의 PC 캡처 화면을 확인한 후 회원 가입을 승인하고, 대포계좌를 사용하여 입출금을 하며, 대포통장업자를 통해 수익금을 현금세탁하여 각 조직에 분배함



[○○에셋 본사 조직원이 사용한 HTS 관리자 프로그램]

- ‘○○에셋’ 본사와 회원모집지점은 리딩방(회원들에게 매매타이밍을 알려주는 단체대화방)을 운영하고, 조직원들이 마치 회원인 것처럼 리딩방에 참여하여 일명 ‘붓질’(리딩자의 리딩에 호응하고 허위로 수익 인증을 하는 등 바람을 잡는 행위)을 함으로써, 회원들로 하여금 쉽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혼동시켜 적극적인 선물거래를 유도함 ※ 자세한 내용은 별첨2 참조



「조직원들 사이의 아래 텔레그램 대화에서, 회원들로 하여금 손실을 보게 하려는 모습이 확인됨」



- 이와 같은 범행으로 3억 원이 넘는 손실을 본 회원도 발생하는 등 회원들은 큰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조직원들은 회원들의 손실금액을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나누어 가졌음

※ 조직원들은 자신의 지위에 따라 자신이 가입시킨 회원/자신의 팀이 가입시킨 회원/전체 회원의 실시간 손익을 확인하면서 범행 계속

고객관리

검색 : 검색취소

고객정보			매매손익					잔액정보			
접속	아이디	이름	추천인	평가손익	매매손익	수수료	실현손익	실시간손익	평가금액	실잔액	로스켓
-			9999	0	0	0	0	0	7,460	7,460	0
-			9999	0	5,601,571	-626,663	4,974,908	4,974,908	2,981,393	2,981,393	0
▶ 접속중			9999	12,287	-19,554,760	-631,551	-20,186,312	-20,174,025	4,036,060	4,023,773	100,000
-			9999	0	-1,176,150	-54,062	-1,230,212	-1,230,212	1,900,411	1,900,411	0
-			9999	0	0	0	0	0	2,973	2,973	0
-			9999	0	0	0	0	0	100,001	100,001	0
-			9999	0	0	0	0	0	0	0	0

접속: 1 12,287 -15,129,339 -1,312,276 -16,441,616 -16,429,329 9,028,298 9,016,011 100,000

거래 내역보기 일별손익 고객정보

[조직원이 실행한 HTS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회원들의 손익 상황]

- 이에, 계좌 분석, 수익금 정산 관련 자료 등 압수물 분석을 통해 주요 피고인 14명의 범죄수익이 약 20억 원 상당임을 확인하였고, 이들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추정보전 하였거나 추정보전 진행 중임
 - ※ 피고인 B2의 경우, 고가의 차량(포르쉐 카이엔 쿠페) 소유자임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추정 보전 완료
 - ※ 프로그램 개발자는 필리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며 생활한 사실 확인됨



[프로그램 개발자의 필리핀 주거지에서 촬영된 필리핀 페소 현금 뭉치(9,800만 원 상당) 사진]

4 향후 계획

- 이 사건은 불법 HT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규제를 우회하여 무분별한 선물옵션 투자를 하도록 조장해 고위험 상품인 선물옵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증거금 예치, 교육 이수 등)를 무력화 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임
- 사설 선물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선물거래시장 운영은 통상적인 인터넷 도박에 비하여 투자자들의 투자 단위가 커서 쉽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음
- 특히 최근에는 원격접속 서버 이용, 비대면 범행, 조직적인 범행의 분업화 등 그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고 있는 바,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는 사이버범죄수사 중점청으로서, 전문화 인력 및 디지털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날로 비대해지는 이와 같은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엄단할 것임

별첨1

< 피고인별 공소사실 및 처분 내역 >

사설 선물 HTS 공급조직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처분
1	A1 (남, 39세)	HTS 프로그램 개발	- '21. 7.부터 사설 선물 HTS 공급조직에 가담, HTS 프로그램 업데이트, 서버 관리 등을 하여, HTS 운영 조직으로 하여금 불법 사설 선물 HTS를 운영할 수 있게 함 [자본시장법위반] - 위 범행 과정에서 HTS 프로그램 사용자의 컴퓨터 화면을 몰래 캡처하여 공급조직이 관리하는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포함시켜 배포[정보통신망법위반(침해등)]	'23. 8. 30. 구속기소 ('24. 2. 15. 징역 2년 선고, 항소심 중)

※ 조직원 2명[A2(남, 39세), A3(남, 38세)]은 계속 추적 중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OO에셋) 본사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처분
2	B1 (남, 31세)	본사 공동운영	- '22. 3. ~ '23. 10. 'OO에셋'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선물 HTS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약 90억 원을 입금받음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 위 범행 과정에서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고, 수익금 33억 원을 대포통장업자에게 송금하여 현금으로 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23. 12. 15. 구속기소
3	B2 (남, 30세)	본사 공동운영	- '22. 3. ~ '23. 3.경 B1과 함께 'OO에셋'이라는 이름으로 사설 선물 HTS를 공동운영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 B1과 함께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입금받고, 수익금을 대포통장업자에게 송금하여 현금으로 세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24. 2. 5. 구속기소
4	B3 (남, 31세)	본사 주간실장	- '22. 3. ~ '23. 10. 'OO에셋'이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의 본사 주간실장으로 가담하여 리딩방 운영, 회원가입 승인, 입출금 처리 등 업무 담당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24. 2. 5. 구속기소
5	B4 (남, 31세)	본사 야간실장	- '22. 3. ~ '23. 10. 'OO에셋'이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의 본사 야간실장으로 가담하여 회원가입 승인, 입출금 처리 등 업무 담당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24. 3. 26. 구속기소

사설 선물 HTS 운영조직(OO에셋) 지점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처분
6	C1 (남, 30세)	지점 팀장	'22. 3. ~ '23. 10. 'OO에셋'이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 HTS 회원모집지점 팀장으로 리딩방 운영, 고객 유치 업무 등 담당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23. 11. 27. 구속기소 (24. 1. 17. 징역 1년 선고, 향소심 중)
7	C2 (남, 30세)	지점 팀장	'22. 3. ~ '23. 10. 'OO에셋'이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 HTS 회원모집지점 팀장으로 리딩방 운영, 고객 유치 업무 등 담당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23. 11. 27. 구속기소 (24. 1. 17. 징역 1년 6월 선고, 향소심 중)
8	C3 (남, 30세)	지점 조직원	'22. 5. ~ '23. 10. 'OO에셋'이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 HTS 회원모집지점 조직원으로 리딩방 참여, 고객 유치 업무 등 담당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24. 3. 26. 구속기소
9	C4 (남, 29세)	지점 조직원	'22. 3. ~ '23. 4. 'OO에셋'이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 HTS 회원모집지점 조직원으로 리딩방 참여, 고객 유치 업무 등 담당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24. 3. 26. 구속기소
10	C5 (남, 31세)	지점 조직원	'22. 3. ~ '23. 4. 'OO에셋'이라는 이름의 사설 선물 HTS 회원모집지점 조직원으로 리딩방 참여, 고객 유치 업무 등 담당 [자본시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24. 3. 26. 구속기소
11	C6 (남, 30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4. ~ '23. 10.)	'24. 3. 26. 불구속기소
12	C7 (남, 30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3.~11. 및 '23. 5.~6.)	'24. 3. 26. 불구속기소
13	C8 (남, 30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3.~11. 및 '23. 5.~10.)	'24. 3. 26. 불구속기소
14	C9 (남, 27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3.~8. / '22. 12.~'23. 4. / '23. 6.~10.)	'24. 3. 26. 불구속기소
15	C10 (여, 26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9. ~ '23. 10.)	'24. 3. 26. 불구속기소
16	C11 (남, 30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11. ~ '23. 10.)	'24. 3. 26. 불구속기소
17	C12 (남, 30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9.~'23. 2. 및 '23. 6.~10.)	'24. 3. 26. 불구속기소
18	C13 (남, 25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3. 5.~10.)	'24. 3. 26. 불구속기소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처분
19	C14 (남, 32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3. 6.~10.)	'24. 3. 26. 불구속기소
20	C15 (남, 26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3. 6.~10.)	'24. 3. 26. 불구속기소
21	C16 (여, 28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3. 7.~10.)	'24. 3. 26. 불구속기소
22	C17 (남, 30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3.~'23. 1. 및 '23. 6.~9.)	'24. 3. 26. 불구속기소
23	C18 (남, 28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3.~'23. 1. 및 '23. 6.~9.)	'24. 3. 26. 불구속기소
24	C19 (남, 28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3.~'12. 및 '23. 5.~10.)	'24. 3. 26. 불구속기소
25	C20 (여, 27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5.~'23. 8.)	'24. 3. 26. 불구속기소
26	C21 (남, 31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2. 10.~'23. 5.)	'24. 3. 26. 불구속기소
27	C22 (남, 31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3. 1.~3.)	'24. 3. 26. 불구속기소
28	C23 (남, 31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3. 1.~3.)	'24. 3. 26. 불구속기소
29	C24 (남, 32세)	지점 조직원	상동 (다만, 가담 기간 '23. 1.~3.)	'24. 3. 26. 불구속기소

사실 선물 HTS 조직 범죄수익 세탁업자

순번	피고인	역할	공소사실 요지	처분
30	D (남, 40세)	대포통장 공급업자	- '22. 5. ~ '22. 12. 'OO에셋' 사실 선물 HTS를 운영자(B1, B2)에게 입금용 차명계좌 접근매체 대여 등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 '22. 5. ~ '23. 9. 위 B1, B2로부터 사실 선물 HTS 운영 수익금 33억 원을 송금받아 현금 인출하여 전달 [범죄 수익은닉규제법위반]	'24. 3. 26. 불구속기소 (별건으로 구속 중)

별첨2

< ○○에셋 회원모집 조직원 사용 PC 화면 - 리딩방 봇질 모습 >

○ 조직원이 PC에 여러 개의 리딩방 대화창을 띄워 놓은 모습

- 조직원은 같은 리딩방에 2개의 다른 계정으로 입장하여 회원행세를 함



- 조직원은 '오늘 리딩 너무 좋네요 매일매일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라고 리딩에 호응하는 일명 봇질을 하고 있음



○ 위 리딩방에서 허위 수익(

실시간손익	실현손익
7,730,905	4,251,228

,

실시간손익	실현손익
6,401,590	4,251,228

)을 인증하는 모습도 확인됨

